

정념과 신체의 기호화*

— 스포츠 선수의 몸에 대한 고찰

송치만**

【 차 례 】

- I. 서론
- II. 스포츠 선수를 바라보는 기호학적 시선
- III. 정념의 기호학과 몸의 부상
- IV. 몸의 기호화, 새로운 구상
- V. 감각의 장과 몸
- VI. 몸의 구상화와 기억, 흔적
- VII.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 선수의 몸의 형성 과정을 기호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의 몸은 경외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수의 몸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변화가 발생한다. 개별 종목의 특성에 걸맞은 몸이 형성될 때 몸의 특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에코와 바르트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 비평의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자 파리학과의 기호학을 참조하고자 한다. 감각 주체, 정념 등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몸의 문제가 기호학적 대상이 되었다. 특히 기호 구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과 파리학과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의미생성행로의 자동화에 대한 의문은 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흐름에서 풍터니유는 몸을 기호학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심층적인 기호학적 조

* 이 논문은 2019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단독저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limoges@konkuk.ac.kr

작의 토대로서 몸-행위소와 구체적인 기호학적 대상에서 나타나는 신체성의 형상소라는 구분을 제안한다.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흔적의 기호학을 구상할 수 있다. 몸-행위소의 구상적 표명은 몸-행위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으며 그 상호작용의 흔적을 간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상적 기억을 구성한다.

풍타니유의 구상을 스포츠 선수의 몸의 형성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감각의 장에서 선수의 움직임은 타자의 외피와 접촉하고 그로부터 신체의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상호작용의 흔적이 선수의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구상적 기억이라는 개념은 몸-행위소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능력의 획득이나 시련의 수행 과정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종목에서 몸의 기억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결국,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몸의 구상적 표명의 양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쇠어 : 기호학, 의미생성행로, 정념, 몸, 스포츠

I. 서론

스포츠 선수들의 영웅화 또는 우상화는 프로스포츠의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상화된 선수들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매체의 즉각적인 노출이 시대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선수들의 행위, 의상, 일상, 용품 등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스포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중심에 선수들의 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의 행위는, 기호학적으로 말하자면, 실행적 차원의 신체적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수행이 전제하는 신체적 능력의 획득 과정까지 고려하면 선수의 몸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웅의 업적과 성과는 감탄과 숭배의 대상이 되고 특히나 신체적 역량은 일상의 몸과 차별화되면서 더욱 숭배의 대상이 된다.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중이 범접할 수 없는 저 너머의 무엇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스포츠 선수의 강인하고 이상적인 몸에 대한 경외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포츠 선수의 건강함, 강인함의 이데올로기에 몸의 이미지가 중첩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스포츠 선수의 몸은 다르게 보인다. 선수가 강인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논박의 여지가 없으나 종목의 특성에 맞는 몸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이 신체의 부분적 사용만을 허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의례적이다. 축구는 손의 사용을 금지하고 농구, 배구, 핸드볼 등은 발의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와 허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 종목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킨다. 물론 신체의 고른 발달을 바탕으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테니스 선수나 볼링 선수의 한쪽 팔이 유난히 발달한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이 하체의 훈련을 바탕으로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팔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를 발달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고능력 스포츠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체적 사용이 요구된다. 200kg 이상을 들어올려야 하는 역도를 생각해 보자. 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200kg의 바벨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려야 했을 것이다. 전문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듣는 선수들의 부상이나 수술 소식은 스포츠가 신체의 계발이라는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인간 신체의 과도한 사용이 신체의 손상을 가속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직관적인 수준의 궁금증을 기호학의 영역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스포츠 선수의 몸에 집중하고 있는 기호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편적인 문화 비평 차원에서 몇몇 언급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단편적인 이런 시선이 흥미로운 출발점을 제시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부터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몸을 바라보는 관점의 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0년대 기호학은 행위의 기호학이라 불린다. 실행적 차원의 기호학적 행위들을 서사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서사 문법은 이야기속의 행위소 역할들이 논리적으로 연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머물렀다. 구조주의적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발화 주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의 몸이 언급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각 주체, 정념 등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몸의 문제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기호학적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기호 구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과 파리학파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의미생성행로의 자동화에 대한 의문은 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폐쇄된 구조로 작동하는 의미생성행로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몸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글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정념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 정념의 연구 초기에 정념이 몸을 통해 표출된다는 점에서 둘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연구되었다. 퐁타니유Jacques Fontanille가 몸의 기호화에 관한 개별적 연구를 주장한다 해도 불연속의 기호학에서 정념을 다루는 연속의 기호학으로 그리고 몸의 도입에 이르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파리학파의 기호학은 스포츠 선수의 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서사적 차원의 신체적 능력과 수행을 언급할 뿐이고 이는 인지적, 정념적 차원과의 관계를 맺는 추상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몸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퐁타니유의 제안 역시 몸과 서사성의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스포츠 선수의 행위가 서사적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¹⁾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어서 스포츠 선수의 몸의 문제도 기호학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 영역의 고유성을 고려할 때 부각되는 스포츠 선수의 몸의 형성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서사적으로도 신체적 수행이 지배적으로

1) 송치만, 「스포츠 담화의 기호학적 분절」, 『기호학 연구』23집, 한국기호학회, 2008.

드러나는 스포츠 영역에서 선수의 몸은 핵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기호학적 실천의 주체인 행위소의 몸의 문제를 다뤄보기로 한다.

II. 스포츠 선수를 바라보는 기호학적 시선

스포츠에 대한 기호학자의 비평은 드문 편이다. 바르트가 보여줬던 프로레슬링에 대한 단상이나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단평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에코의 축구에 대한 사회 기호학적 비평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시선은 의미 있지만 엄격한 기호학적 체계를 갖는 분석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기호학자의 단상은 스포츠 선수의 몸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볼 만하다.

에코가 스포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기보다 개인적 경험을 기호학적 사고로 풀어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이 축구에 대한 가벼운 성찰을 유도한 듯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의 사회병리적 측면을 고발하고 있다. 그중에서 스포츠 선수의 몸에 대한 짧지만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에코는 스포츠가 경쟁의 타락 현상으로 인해 건전성을 상실하고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운동선수는 이미 오직 하나뿐인 몸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든 사람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속적인 게임을 위한 독점적인 원천과 중심으로 삼는다. 운동선수는 괴물이며 <웃는 인간>으로, 자신의 온몸을 도구로 만들려다 그 발이 위축되고 발육이 억제되어 버린 게이샤나 다름없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마치 괴물이 그러하듯, 스포츠가 한창 진행 중인 순간, 즉 개인적으로 즐기는 게임으로서의 스포츠가 게임에 대한 일종의 담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볼거리로 발전할 때(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벌이고 내가 바라보는 게임을 통해) 탄생한다.²⁾

스포츠가 선수의 몸을 원천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 스포츠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우위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비정상적 몸이 출현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스포츠의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인 훈련이 낳은 몸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다. 특정 종목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자면 균형이라는 덕목을 포기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의 발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균형을 상실한 채 발달한 부위는 마치 전족과 같아서 스포츠 선수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신기한 괴물을 관람하듯이 스포츠 선수의 왜곡된 몸 역시 관람의 대상이 된다. 관람자들이 선수들의 몸을 마치의 괴물의 몸처럼 뒤틀린 상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들린다. 에코는 스포츠가 선수들에게 강요하는 잔혹성을 말하는 것이다. 경쟁이 빚어낸 스포츠의 잔혹성이 왜곡된 몸의 원인이 되고 그것을 즐기는 대중의 잔혹성이 더해져서 현대의 스포츠가 탄생하는 것이다. 에코의 언급은 스포츠의 사회학적 측면에서 개진되지만, 스포츠 선수의 몸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르트는 프랑스의 3대 스포츠 중의 하나라 불리는 투르 드 프랑스의 자전거 경주 선수들의 별명을 분석하기도 하고 프로레슬링 선수들의 연기자 특성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바르트의 프로레슬링에 관한 비평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프로레슬러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호학적이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눈에 프로레슬러는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대중적 구경거리의 연기자일 뿐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WWE 프로레슬링 역시 자신을 엔터테인먼트라고 규정한다.³⁾ 시나리오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지만, 프로레슬러에게는 고도의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움베르토 에코, 『가짜 전쟁』, 김정하 역, 열린책들, 2009, 278쪽.

3) WWE는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의 약자인데 여기서 entertainment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바르트가 지적하기를, 프로레슬러가 발하는 기호는 총체적 명확성을 갖기 마련이고 그의 육체 역시 그러한 속성을 갖기에 자신의 역할을 육체적 유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비열한 이미지를 갖는 레슬러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 비열함을 표현해야 하고 더군다나 관중이 그 이미지를 오해 없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듯이 경기의 첫 번째 열쇠가 레슬러의 육체가 되는 것이다.⁴⁾ 결국, 프로레슬러의 육체가 경기 전체를 배아 상태로 내포하고 있는 기호가 된다는 것이다.⁵⁾

프로레슬링에서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존재하며, 상징도 암시도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제공된다. 그 어떤 것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프로레슬링에서의 동작은 모든 불필요한 의미를 잘라내고 관중에게 순수하고 완전한, 자연처럼 둥근 의미작용을 의례적으로 제시한다.⁶⁾

구경거리로서의 레슬링에서 모든 것이 오해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관중에게 전달돼야 하는 상황에서 육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레슬링은 의미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각적인 수용의 대상이 될 때 모든 기호는 선명함 속에 남는다. 이때 레슬러의 육체는 관중을 현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육체가 경기의 모든 행위를 예고할 수 있는 배아의 상태로 주어져야 한다. 선명함을 담보하는 육체, 이것이 레슬러의 몸이다.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레슬러의 몸은 삽화적 몸이라 할 수 있다.⁷⁾ 몸에 쓰인 선수의 정체성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의 몸을 다루는 기호학자들의 단편적인 비평은 흥미롭지

4)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동문선, 1997, 14쪽.

5) 같은 책, 15쪽.

6) 같은 책, 25쪽.

7) 같은 책, 15쪽.

만, 기호학과 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직관적 차원의 언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몸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한 학문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스포츠 선수의 몸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폰타니유의 제안을 참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몸과 관련해서 그가 제안하는 몸-행위소corps-actant와 신체성의 형상소figures de la corporalité의 출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상당한 전환적 사고가 요구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체의 문제를 넘어서 몸의 문제를 다루게 된 이론적 전환의 배경을 살펴봐야 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Ⅲ. 정념의 기호학과 몸의 부상

몸의 문제는 80년대 정념적 주제와 더불어 기호학 영역에 등장했다. 이 당시는 행위action의 기호학과 정념passion의 기호학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였다. 정념의 기호학의 진정한 의미는 정념적 통사론을 고안한 것이고 양태 통사론에서 파생한 정념소pathème의 연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⁸⁾ 정념이 몸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정념과 몸의 문제는 동시에 다루어져 온 것이다. 여기서 폰타니유는 몸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하게 되고 정념에 반드시 연동되지 않은 몸의 독자적인 영역을 기호학의 틀 안에서 갖춰가게 된다. 그가 제안하는 몸의 이론은 매우 난해하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메타언어의 등장과 이 새로운 메타언어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메타언어를 도입하는 방식이어서 매우 촌촌한 논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이 이론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에도 상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포츠 선수의 몸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개념만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파리학파의 서사-기호학의 연관 속에서 몸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8) Jacques Fontanille, *Corps et sens*, PUF, 2004, pp.12~13.

퐁타니유의 구상은 기호학의 오랜 전통과 의미생성행로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소쉬르와 엘름슬레우의 기호 구성에서나 의미생성행로의 논리적 전개 모두에서 조작 주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발화자의 배제라는 오랜 전통을 상기하는 것을 넘어서 조작 주체의 부재는 기호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쉬르나 엘름슬레우의 기호 개념에서는 기표와 기의 또는 표현과 내용을 연결하는 조작자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둘은 상호 전제적으로 기호의 양면을 구성하는 무연적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러나 기호의 두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 문제 될 때, 즉 세미오시스의 조작자가 문제 될 때 몸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인 의미생성행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의미생성행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전환conversion’이라 할 수 있다. 의미 통사론적 관계의 수평적 전환과 층위 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수직적 전환 중에서 의미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수직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심층의 의미범주가 의미론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표층으로 전환될 때 의미는 구상화되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퐁타니유가 오랫동안 주장한 것은 이런 전환의 과정이 마치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어서 조작 주체가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미생성의 복잡화, 구상화에는 발화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벤베니스트를 참조하는 발화자의 개념은 여전히 ‘이야기’의 영역에 머물기 때문에 의미생성행로의 전환이 혼자 스스로 진행되는 상황에 머물게 될 뿐이다. 형식 논리학적 조작에 종속되지 않고 현상으로서, 실천으로서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의미생성행로는 층위를 거치면서 단순히 논리적 형식 단위들이 층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분절을 변형하고 증가시키고 복잡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의미 변화의 역동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전환의 조작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관계, 조작, 특징을 현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현상을 감각하는 현전 *présence sensible*과 현상의 지각으로부터 가치론적 입장과 의미적 차이의 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⁹⁾

구조론적 기호학의 관계나 조작을 논리적 문제로 보지 않고 현상으로 보게 되면서 감각 주체의 개입과 감각 주체의 지각, 즉 몸의 문제가 개입하는 것이다. 더는 시련 *épreuve*의 연쇄에 신경 쓰지 말고 행위소의 몸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위의 기호학을 세운다면 ‘실패한 행위’, ‘서툰’, ‘예상치 못한 사건’의 문제를 규명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행위 논리학의 회고적 재구성에서 자리를 잃었던 현상들이다. 실패한 행위의 우연적 성격은 행위의 시, 공적 전개에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하는 여러 동위성과 의미 있는 방향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감출 뿐이다.

그러면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는 왜 몸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행위의 기호학이 자신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은 이미 그레마스과 쿠르테스 *Joseph Courtés*에게서 볼 수 있다. 서사 기호학은 행위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된 행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서술된 행위의 분석은 인간 행위의 스테레오타입을 인식하고 유형학적이고 통합체적 모델을 세우는 작업이었다.¹⁰⁾ 행위의 기호학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행위 자체가 배제된 것은 바로 행위의 기호학의 구상에 기인한 것이고 당연한 순서로 ‘감각하는 몸 *corps sensible*’이 행위의 기호학에서 배제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80년대에 정념이나 감각 경험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행위의 기호학과 정념의 기호학 사이의 분절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위의 기호학은 정념을 서사적 시퀀스의 혼란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몸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정념의 기호학의 대두와 더불어 감각하는

9) Ibid., p.15.

10)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1, 1979, p.8.

몸의 개념이 기호학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 세미오시스에서 몸의 위치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폰타니유는 더 이상 정념의 기호학 이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문제를 다루는 고유한 영역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새로운 영역을 “흔적¹¹⁾empreinte”의 기호학이라 명명한다.

IV. 몸의 기호학, 새로운 구상

폰타니유는 몸의 문제를 기호학의 새로운 영역에서 구상하고자 한다. 그의 이론적 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소논문에서 전체를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가 제안하는 몸의 기호학적 재구성은 스포츠 선수의 몸의 변형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한에서 다룰 것이다. 몸의 문제를 도입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사적 분석의 몇 가지 한계점과 관련된다. 앞서 살펴본 그레마스의 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사적 분석은 변형의 결과로부터 진행되는 회고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분석 방식을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의 서사적 수행의 양상을 고찰해 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 속에서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의 노력일 것이다. 수행을 위해 실천하는 몸이자 능력의 확대의 대상인 몸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몸과 수행의 관계는 어떠한가? 서사적 변형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수한 선수의 몸에 기반을 두는 양태적 능력은 충분한 것이다. 성공한 수행은 긍정적 차원의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선수의 몸을 말하지 않는다. 추상적 차원의 서사적 역할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에서 서사적 상황을 조금 다른 심급에서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100m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매 경기에서

11) Jacques Fontanille, Op. cit., pp.2~3.

같은 기록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승한 기록은 거의 매 순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를 서사적으로 설명하면 매우 단순한 상황에 머물게 된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고 성공의 서사인지 실패의 서사인지만 중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태적 /능력/의 유무만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미묘한 상황은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된다.

이 상황을 서사도식의 연쇄라는 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대립의 과정에서 /의무/ 또는 /의지/의 양태성이 두 주체를 서사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배의 단계에서는 인지적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지식/이라는 양태화modalisation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실행적 차원에서 /능력/의 양태화는 육체적 행위에 바탕을 둔 스포츠 담화에서는 매우 본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¹²⁾ 결과의 단계에서는 실현된 주체sujet réalisé가 문제 된다. 대립하고 있던 두 주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추구한 가치 대상과의 연접 또는 이접의 형태로만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서사층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소 위상은 구상적 층위의 위상과 불일치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격투 경기에서 시종 수세에 몰리다 받아치는 주먹 한 방으로 경기를 종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구상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으나 서사적으로는 승리와 연접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결국, 행위소 차원에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서사, 실수의 몸짓, 서툰의 행위 등은 서사적 차원에서 보면 모두 능력의 부재라는 양태적 차원의 구상화일 뿐이다. 앞서 지적한 작은 차이로 수행에 실패한 100m 선수나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 실패한 서사의 주체가 된 선수의 사례는 성공한 주체의 서사에 묻혀 버린다는 것이다. 의미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구상적 단위를 구별하는 방식은 형상소의 주제적 차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동어 반복적 인상을 지을 수

12) 여기서 /의무/, /의지/, /능력/, /지식/은 서사도식의 중요 개념인 양태성을 지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없다. 구상적 단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서사적 변형의 도출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상소의 주제적 역할은 이미 활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 의미생성행로의 분석에서 이 과정에 많은 몫을 할애하지 않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구상적 단위의 추상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표층의 문제는 수사학의 문제로 치부하고 기호학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도 상기할 수 있다.

행위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이러한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서사도식의 제한된 역할에 묶여있는 행위소가 아니라 실천의 긴장적 관계에 처한 몸-행위소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구상적 형태론과 통사론을 통해서 이를 해결한다는 게 폰타니유의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몸-행위소는 물질/에너지 *matière/énergie* 쌍에 기반을 두는 구상적 통사론의 주역이 된다.¹³⁾ 물질/에너지의 쌍은 형식/힘 *formes/forces*이라는 서사적 차원의 메타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면 다양한 선수들의 몸과 그들의 다양한 행위의 실천의 동인을 떠올리게 한다. 서사적 주체와 추구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방향성과 힘의 관계가 물질적 차원의 긴장 관계로 전환되면서 행위소 역할은 몸의 구상적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기호학적 접근은 의미 생산에서 몸의 이중적 위상에서 기인하는 양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적인 기호학적 조작의 토대로서 몸-행위소와 구체적인 기호학적 대상에서 발현되는 신체성의 형상소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몸의 기호학적 위상이 이중적 한정을 받으며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몸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기호작용과 그것을 책임지는 심급에 대한 몸의 효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고 행위의 이론에 대한 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다.¹⁴⁾ 폰타니유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의 위상에

13) Jacques Fontanille, *Op. cit.*, p.14.

14) *Ibid.*, pp.6~8.

대해 살펴보면서 스포츠 선수의 몸에 다가가고자 한다.

V. 감각의 장과 몸

퐁타니유는 감각의 장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몸의 위상을 정리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유형학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선수의 몸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선수가 경기를 통해 겪게 되는 상호작용은 퐁타니유의 감각의 장을 통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감각 장의 개념은 테니에르Lucien Tesnière가 제안하는 항가 동사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듯하다.¹⁵⁾ 행위소의 개념이 테니에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동사 매듭 *nœud verbal*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행위소의 수에 따라 작은 이야기 *petit drame*의 성격이 결정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감각의 장에서 상동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퐁타니유는 훨씬 세세한 분류를 제안하고 있지만 자동적, 타동적, 재귀적 등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테니에르에 의지하고 있다.

감각의 장에서 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동적 장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⁶⁾ 그는 타동적 장에 대한 설명을 위해 ‘터치’의 예를 든다. 터치는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신체적 외피 *enveloppe corporelle*의 개입을 통해서 외부에서 느껴지는 낯선 것이 자신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판단하게 허락해준다. 단지 터치만이 타동적 장의 유일한 특징이 아니라면서 호흡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감각의 타동적 장은 매우 중요하다. 배구나 농구처럼 단순히 공을 매개로 하거나 아니면 아이스하키처럼 장비를 착용하

15) Lucien Tesnière,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1982.

16) Jacques Fontanille, Op. cit., pp.59~60.

고 신체적 막을 한 번 더 차단한 채 스틱이라는 고유한 도구를 통해 펍이라는 대상과 접촉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투척 종목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한다. 창, 투포환, 해머 등을 직접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축구와 배구만 비교하더라도 직접적인 손의 접촉과 신발을 매개로 발생하는 접촉은 다르기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선수는 그 결과를 직감하게 된다. 몸의 경험이 주는 감각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몸에 기억되고 그 기억이 몸의 구상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좋은 감각의 유지와 확장을 통한 신체의 변화와 나쁜 경험을 밀쳐내면서 발생하는 몸의 경계 역시 몸의 구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¹⁷⁾ 몸의 어떤 부분이 강화될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스포츠 경기가 상호적 주체적이라는 점을 보면 상호적 장의 개념 역시 중요하다. 경기는 타자와의 경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선수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접촉이 대상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에게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 투기 종목이나 구기 종목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때 접촉의 대상이 타자의 몸이 되는 것이다.

감각의 장과 관련해서 장소의 문제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장소의 기호화는 육체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의미작용의 고안 과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환경의 기호화는 관점이나 지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의 형식에서 육체적 경험을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스포츠 선수의 몸에 관한 고찰에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공간의 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특성이 중요하다. 특정 공간에 위치한 선수는 공간의 지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선수가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

17) 인류학자 Leroi Gourhan을 언급하면서 동물들이 입의 터치를 통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듯이 인류는 손의 터치를 통해 그 역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Ibid., p.59.

때 공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간의 넓이나 깊이에 따라 몸이 다르게 변형될 것이다. 수평적 공간의 영향을 받은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선수의 몸이 다르고 수직적 공간의 영향 아래에 있는 클라이밍 선수와 다이빙 선수의 몸 역시 다르게 구성된다. 단지 공간의 차이가 이런 변화를 전적으로 유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각의 장에서 몸의 작용을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구, 공간, 상대 주체의 문제를 살펴봤다. 선수가 감각의 장에서 이런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유한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선수의 몸이 실제로 어떤 구상화를 거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행위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폰타니유는 몸-행위소를 구성하는 양면이라 말한 살chair과 몸corps을 구분한다.¹⁸⁾ 전자는 몸-행위소의 물질적 토대가 되고 후자는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한다.¹⁹⁾ 자아, 몸 자체는 기호학적 대상의 생산 행위 속에서 구성되기에 반복과 방향의 항구성에 의해 그 정체성이 보장된다. 나-살Moi-chair은 파롤의 행위소의 개별적인 경우에서 표명된다. 따라서 감각-모터sensori-moteur의 중심이 되고 자아-몸Soi-corps의 참조 대상이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물질적 토대로서 선수들의 몸을 참조해서 개별 종목에 고유한 전형적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물질적 토대로서의 살은 변형적 에너지를 갖고 추동하고 저항하게 되고 몸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복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살에 대한 지속적인 참조가 발생하는

18) Ibid, pp.12~13.

19) 장마리 플로슈, 『비주얼 아이덴티티』, 권승태·박일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32~34쪽. 정체성의 개념은 리코르를 참고하고 있다. 파리학과 기호학의 흐름에서 리코르의 정체성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흡수한 사람은 플로슈라 할 수 있다. 시각 정체성, 나가서 브랜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혁신이 필요한 브랜드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성격’과 ‘지켜진 약속’ 개념이 활용된다.

것이다. 반복을 통한 몸의 정체성 형성은 스포츠 선수에게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반복적 훈련이나 경기에 임하는 과정에서 몸은 특정한 방향으로 전형화되기 마련이다. 살이 참조 대상이 된다는 점은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어떤 형태의 몸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참조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프로레슬링 선수의 몸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살과 몸 사이의 참조 관계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레슬링 선수 역시 매우 고난도의 몸의 실천을 위해 반복되는 훈련을 거치지만 각본에 의해 정해진 정체성이 자의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몸과 종목의 정체성 사이에 친연성이 희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레슬링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마치 인간 군상인 듯 다양하고 올림픽 종목의 레슬링과는 매우 거리가 먼 몸을 보여준다. 전형화보다 개별성이 지배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가 지적하는 프로레슬링 선수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닐 것이다. 프로그래밍된 서사적 변형을 위해 구성된 몸일 뿐이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몸은 성공과 실패의 서사를 예측할 수 있는 몸일 뿐이다. 담화층위의 관점에서는 행위자의 주제적 차원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되는 구상적 몸이라는 것이다.

VI. 몸의 구상화와 기억, 흔적

상호작용을 통해 몸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스포츠 선수의 몸의 전형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상호작용이 몸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것이 일회적이라면 그 변화는 고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몸의 변화가 고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기억의 문제가 개입되면 좀 더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기호사각형의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억의 개념이다. 나

비 행로를 통해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최종의 항은 행로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사랑→증오→증오→사랑’의 행로에서 출발의 ‘사랑’과 행로를 거친 ‘사랑’은 의미론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증오’의 확언을 통해 얻어진 ‘사랑’은 행로의 기억을 갖기 때문에 같은 사랑일 수 없다. 일상의 경험을 소환하는 일은 무의미하므로 개념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퐁타니유는 그레마스의 기억의 개념을 참조하면서 몸에도 이러한 기억의 개념이 작용해서 구상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²⁰⁾ 먼저 기억의 개념을 일반화하면서 구상적 통사론syntax figurative의 기억 작용을 제안한다. 단위들의 통합체적 전개가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기억의 작용이 개입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요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적 연사가 제시되기 마련이고 과거의 기억이 통합체에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서사 통사론에서 주체와 반-주체의 상호작용은 지속해서 둘을 변형시키게 된다. 행위소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양태성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한다. 양태성의 축적으로 행위소의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할 때 양태성의 변화에 대한 기억은 그 정체성 안에 보존되어 기억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주체와 가치 대상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사이에서 감각적이고 정서적 만남은 정념적 변화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퐁타니유는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구상적 통사론이 다양한 형상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상호작용은 누군가의 움직임과 타자의 외피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갖는다. 그리고 앞선 상호작용이 기호학적 단위의 변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표식marquage이라 명명하고 표식의 연쇄가 상호작용의 기억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²¹⁾ 이를 몸-행위소에 적용하면 표

20) Jacques Fontanille, Op. cit., pp.106-107.

21) Ibid., p.107.

식은 흔적^{empreintes}이 되고 기호학적 대상의 기억은 흔적의 망 속에서 구성된다. 몸-행위소의 구상적 표명은 몸-행위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으며 그 상호작용의 흔적을 간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상적 기억을 구성한다.²²⁾ 여기서 이 흔적은 시간적, 공간적 인접성에 의해서만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²³⁾

퐁타니유의 제안을 따르자면 선수의 몸은 기호학적 행위의 토대가 되고 몸-행위소의 상호작용이 여러 종목에서 다양하게 구상적으로 표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전의 장에서 선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해가는 서사적 행위들은 켜켜이 쌓여 선수들의 몸의 전형적인 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적 기억이라는 개념은 몸-행위소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능력의 획득이나 시련의 수행 과정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종목에서 몸의 기억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별 기호학적 대상에서 신체성의 형상소가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의 구상적 표명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을 스포츠 선수의 몸에 적용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선수의 구상적 상태는 다양한 통합적 전개를 거쳐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는 다른 선수, 즉 반-주체와의 경쟁, 공간에의 적응이나 가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배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배적 구상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뿐이다. 격투 종목은 당연히 상대 주체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주체의 몸이 형성된다. 투척 종목의 경우에는 선수가 다루는 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몸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최대한 멀리 던지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지각과 그에 대한 몸의 반응도 중요하다. 이 모든 지점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주체의 움직임은

22) Ibid., p.81.

23) Ibid., p.106.

타자의 외피와 접촉하고 그로부터 감각의 장이 형성되고 신체의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상호작용의 흔적이 선수의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적, 공간적 인접성이다. 흔적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의 변화는 변화하기 전과 후의 몸 사이의 상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시간적 연쇄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살과 몸의 참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형의 발생은 기억되고 더 나가서 전형화에 이른다. 개별 종목에서 고유한 형태의 몸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억의 반복과정에 기인할 것이다.

VII. 결론

스포츠 선수의 왜곡된 몸, 또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서사적 몸이라는 단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수의 몸이 이러저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구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다. 학문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기호학적 관점으로 영역을 한정하면서 파리학파의 연구 흐름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의미생성행로라는 폐쇄된 구조 안에서 의미 연구에 천착하는 파리학파에 인식의 전환점이 발생하며 몸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폰타니유는 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레마스가 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는지 흥미로운 추측을 한다. 생생한 발화작용의 관점에서 기호학적 대상에 접근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주저했으리라는 것이다.²⁴⁾ 표명과 표현의 관점에서 담화에 접근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층들과 다양한 선택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들의 통사론을 세우는데 당시 이론적 상황에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연구 대상을 종결된 담화로 한정할

24) Ibid., p.52.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선택은 의미생성행로를 통해 담화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종결된 텍스트의 회고적 분석은 내적 구조를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고 가추연역법이라는 고유한 절차를 통해 모델의 완결성에 다가가는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내적 구조의 관심이 발화작용으로 옮겨가면서 담화의 심급에서 진행 중인 행위에 연루된 몸-행위소가 중심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배경이 스포츠 선수의 몸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모든 담화에서 실행적 차원의 신체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몸의 문제가 스포츠 담화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스포츠 담화 역시 단순하게 몸의 행위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몸의 개입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관찰 대상이 될 뿐이다. 풍타니유가 제안하는 몸에 관한 매우 복잡한 이론을 부분적으로 참조하면서 스포츠 선수의 몸이 다양하게 전형화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상적 흔적의 개념은 전형화된 스포츠 선수의 다양한 몸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시론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의 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기보다 일반적 접근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학파의 기호학의 틀 안에서 스포츠 선수의 몸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출발점에 섰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송치만, 「스포츠 담화의 기호학적 분절」, 『기호학 연구』23집, 한국기호학회, 2008.
-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동문선, 1997.
- 안 에노, 『서사, 일반 기호학』, 홍정표 역, 문학과 지성사, 2003.
- 움베르토 에코, 『가짜 전쟁』, 김정하 역, 열린책들, 2009.
- 장마리 플로슈, 『비주얼 아이덴티티』, 권성태·박일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Algirdas Julien Greimas , *Du sens*, Paris, Seuil, 1970.
- _____, *Du sens II*, Paris, Seuil, 1983.
- Algirdas Julien Greimas et Jacques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 1991.
-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rééd. 1993.
- _____,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2, 1986.
-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2*, Paris, PUF, 1983.
- Jacques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Limoges, PULIM, 1998.
- _____, *Corps et sens*, PUF, 2005.
- Lucien Tesnière,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1982.
-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II. La configuration dans le récit de fiction*, Paris, Seuil, 1984.

Passion and Semiosis of the Body: A Study on the Body of a Sports Player

Song, Chi-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process of forming the body of a sports player. Based on the image of health, the body of a sports player is an object of reverence and adoration. However, the athlete's body undergoes distorted changes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When a body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sport is formed, certain parts of the body tend to develop relatively. We can confirm this situation through the comments of Eco and Barthes.

In order to look at this phenomenon from a systematic point of view beyond the level of intuitive criticism, we would like to refer to the semiotics of the Paris School. As problems such as sensory subjects and passions emerged as new issues, the problem of the body became a semiotic object. The question of the automatic construction of sign and the question of the automation of generative trajectory, which is a core concept of the Paris School, made it possible to deal with the problem of the body in detail.

In this flow, Fontanille uses the body as a semiotic object and proposes a distinction between the body-actant as the basis of semiotic operation and the figures of corporality appearing in concrete semiotic objects. Based on this concept, the semiotics of traces can be conceived. The figurative expression of the body-actant is affec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ody-actant, retaining traces of that interaction, and constructing a figurative memory based on this.

The concept of Fontanille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forming the body of sports player. In the sensory field, the player's movements come into contact with the others envelope, from which the deformation of the body occurs. At this time, the traces of the interaction are left intact on

the player's body. Since the concept of figurative memory is based on body-actant interactions, body memory is embodied in various ways in sports. After all, the aspect of the figurative expression of the player's body in various sports is bound to vary.

Keywords : Semiotics, Generative trajectory, Passion, Body, Sports

투고일: 2022. 03. 31./ 심사일: 2022. 04. 14./ 심사완료일: 2022. 04. 15.